

평화, 휴머니즘을 위한 나의 실천

스리랑카에서의 2년, 그리고 베이징에서의 3년

고은경

UNESCO Beijing Office 유엔봉사단

학창시절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지리부도였고, 좋아하는 수업시간은 세계지리였다.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보면 이렇게 작운데, 과연 이 넓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 세계 지역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 - 그러한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결국 대학교도 세계 지리를 알기 위해 **지리학 전공**으로 진학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부를 해라

내 인생에서 내가 했던 첫 번째 탁월한 선택은 적성에 맞는 전공을 택했다는 것이다. 지리학에서 답사는 여행을 좋아하는 내 성격과 잘 맞았다. 학문적으로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아시아 지리 등을 배우면서 물 부족 및 환경 문제, 인구 이동,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중에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대학원진학을 앞둔 분들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어떤 학과 전공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혹은 자신이 관심 있는 유엔의 활동분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결정을 해야 한다. 유엔의 경우 그 분야가 너무도 다양하다. 의학이나 보건 관련이라면 WHO가 있고, 교육과 문화는 UNESCO, 어린이 보호라면 UNICEF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하나의 유엔사무소 안에서도 프로그램 진행뿐 아니라 행정, 회계, IT만 전담하는 직원들도 있다.

1. 국제활동의 데뷔 무대- KOICA 한국해외봉사단으로 첫 단추를 여미다

대학 졸업 후 나의(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진로는 고등학교 사회/지리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던 평범한 나는 우연히 KOICA에서 파견하는 한국해외봉사단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심장이 크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해외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2년간 생활하고, 내가 그곳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모집공고에서 스리랑카의 한 대학교의 지리학과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교육을 위한 강사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열심히 준비하여 지원하여 드디어, 합격!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떠있는 열대의 섬나라로, 처음에는 기후 및 생활 적응에 힘들었지만 이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스리랑카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스리랑카에 거대한 해일이 덮치는 쓰나미가 일어났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자연재해의 현장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어 놓은 가장 큰 사건이었다. 한 순간에 해안가 마을들이 쓸려가고 도로, 항만이 파괴되었다. 모든 것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은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게 되었다.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들어오고, 곳곳에 유엔 차들이 지나다니고, 각 국제기구들이 바빠 움직이고 것을 보며- 그러한 재앙의 흔적들을 치유하는 인간의 휴머니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도 처음 느끼게 되었다. 스리랑카의 유엔봉사단(UNV)을 보면서 나도 좀 더 큰 세상에서 유엔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해보고 싶다는 도전과 자극을 받게 되었다.

2.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한 나의 발자국 - 유엔봉사단으로서 베이징에서 3년

스리랑카에서 느낀 그 휴머니즘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유엔봉사단(UNV)이 되고 싶었지만 유엔봉사단은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엔봉사단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유엔 산하기구에 파견되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직접 프로젝트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만 봉사단원이지 실무직원이나 다름이 없다. 유엔봉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UNV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지원을 받고, 면접을 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전 세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서류전형 합격도 어려울뿐더러, 면접의 기회도 지원서 제출 후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운이 좋게도 KOICA 귀국봉사단원을 대상으로 UNV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통해 지원서를 보낸 후 바로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UNESCO 베이징 사무소(몽골, 남북한, 중국, 일본을 총괄하는 베이징 주재 유네스코 동북아 지역사무소) 인문사회과학(Social and Human Sciences)부서의 프로젝트 매니저 자리에 지원을 하였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나 관련 용어들을 미리 공부하며 준비했다. 1차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보통 파견될 현지 사무소에서 상사가 될 분이 직접 전화 면접을 보게 되는데, 나의 경우는 상사가 서울에서 국제회의 참가 차 한국에 오게 되어 직접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인인 부서장(P-5 직원)은 베이징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묻는 등 전공지식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접목하여 심층면접을 했다. 몇 주일 후, 내가 UNV로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나는 환호성을 외쳤다. 합격소식을 받자마자, 근무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 공부에 집중했다.

유엔에서는 ‘쉬움기간’ 이라는 것이 없다. 바로 ‘영어’ 라는 세계 공용어로 업무 전선에 뛰어드는 현장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 바로 관련된 프로젝트 자료들을 받고 담당하게 될 업무를 시작한다. 이메일, 공문서 작성은 물론이고, 다른 국제기구 직원들, 전문가들과 회의도 영어로 진행해야 하기에 영어는 기본이 되어야 했다. 나는 해외 유학파도 아니고 순수 토종의 국내파이며, 어학연수 경험도 없다. 하지만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대학에서 개설되는 영어강좌를 듣고, 회화학원도 다니며 노력과 열정으로 영어공부를 해왔다. 유엔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인종과 언어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므로 같은 영어를 쓰더라도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억센트와 발성법들은 다르기에 더욱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

나의 출근 첫 날은 지금도 생생하다. 부서장이 해외출장을 가시는데, 그곳에서 발표할 개회사를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철학의 날’이라는 행사로 한 **중** 일의 철학자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그 행사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유네스코의 정신을 담은, 말 그대로 ‘철학적인’ 개회사를 작성해야 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작성하라는 조언도 없이 나는 당장 다음날까지 그것을 써야 했다. 그날 밤을 새워 공부하고 자료를 찾아 최선을 다해 적어갔지만 부서장의 마음에 들지 않아 바로 내 앞자리의 독일인 인턴을 불러 다시 작성하라고 시켰다. 그 인턴은 3 시간 만에 완벽한 개회사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내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 정말 국제기구의 현장은 냉혹하다는 것을 느끼고 내 자신을 철저히 채찍질해야 하는 것을 느꼈다. 그 뒤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서의 예전 프로젝트 자료들을 읽고, 다른 직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러 다니고, 일이 끝나면 영어 과외도 받으러 다녔다. 함께 일하던 또래 친구, 오스트리아인 JPO(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캐린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내가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며 힘을 주었다. 부서장이 은퇴하면서 그 자리가 오랫동안 공석이 되면서 캐린이 대리대표로서 부서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 캐린은 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주고 항상 격려해주며 큰 용기를 주었다. 유네스코는 매 6 년마다 큰 프로그램을 짜고 그 안에서 매 2 년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한 계획들도 유네스코 파리본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으며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했다. JPO 와 UNV 가 부서를 이끌어 나간 것이다.

UNESCO에서 내가 담당했던 프로젝트 : 물 관련 환경윤리, 사회개발, 국제이주, 인권, 에이즈 방지, 빈곤퇴치 등

- 중국의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 대한민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및 유엔 이주노동자인권협약 관련 캠페인
- 몽골에서 유목민들의 도시 정착 지원 및 빈곤퇴치 프로젝트
- 몽골의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 및 에이즈방지 프로그램
- 대한민국의 이주결혼 외국인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방지 프로젝트 등

활동 2 년차가 되었을 때서야 나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발언권도 커졌다. 물과 관련된 국제 석학들이 모이는 정책포럼에서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원래 유네스코 대표가 가거나, 부서장이 가야 하는 자리에 -일개 봉사단원인 나를 보냈다. 각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모인 다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사이에서 가장 어린 내가 끼어 VIP 단상에 앉았고, 물 정책 포럼에서 유네스코의 물 환경윤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중국 서부지역 물 부족 지역의 환경윤리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학자 섭외 및 국제회의를 기획하는 등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베이징 주재 유엔기구들 사이에서 여성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대표로 활동했다. 유네스코에서는 내 임기 연장을 UNV 본부에 요청했다. 나는 이 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정부지원 UNV 의 경우, 활동기간을 2년 임기로 제한된다) 최초로 1년 더 연장하여 나는 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3. 만국기가 펼쳐이는 유엔 본부에 대한 환상을 깨라

만국기가 펼쳐이는 유엔 본부가 전부가 아니다. 진짜 유엔의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현장에서 가장 빛이 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전염병이 도는 긴급구호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 그들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다. 나 또한 몽골 프로젝트 현장 답사 차 남고비(South Gobi) 사막을 통과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사막 한가운데서 죽을 뻔 했던 적이 있다.

반드시 유엔이라는 조직이 아니어도 좋다. 작년 아이티에 지진이 났을 때 나는 스리랑카 쓰나미를 회상하며, 자진하여 메디피스라는 글로벌보건 NGO 를 통해 아이티로 날아가서 활동했다. 내가 있는 곳이 이 세상의 중심이며, 나의 활동을 통해 평화를 위한 휴머니즘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일 것이다.



[사진 1] 유목민들과 함께 : 몽골에서 유목민들의 빈곤퇴치 프로젝트 담당



[사진 2] 내가 직접 기획한 물 환경윤리 관련 프로젝트 - 국제회의 개최
(International Symposium on Ethic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사진 3] 함께 활동했던 JPO 캐린(맨 왼쪽)과 나, 그리고 인턴 친구들